

행복한 학교에 대한 소망



최기형
교장선생님

‘교수는 강의만 안하면 할 만하고, 교사는 학생만 없으면 할 만하다.’라는 실없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인데 교수는 강의하는 것이 문제라면, 교사는 왜 ‘학생’이 문제일까요? 반대로 학생은 ‘선생님’만 없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까요?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예 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 건강상 문제보다는 ‘학생 지도가 힘들다.’라는 이유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 수업진행을 방해하는 학생, 선생님 지도에 반항하는 학생 등을 지도하는 데 힘이 벅차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단을 떠난다는 것이지요. 어떤 직업이든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만은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보람과 사명감을 갖고 존경받던 ‘교사’라는 직업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 학교는 ‘즐거운 학교, 웃음이 넘치는 학교’, ‘행복한 학생, 행복한 선생님’을 표방합니다. 나아가 ‘선생님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학교’ 이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합니다. 음식을

만드는 가정주부가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고 화가 나 있거나 마음이 울적하다면 좋은 요리를 할 수 있을까요? 식구들이 속상하게 해서 요리를 하고 싶은 의욕이 없어 대충 밥상을 차렸는데, 음식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린다면 가정주부가 행복할까요? 가족 구성원이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가정주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의무감으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고 좋은 요리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교장에 취임했을 때, 평소 존경하는 교육계 선배님께서 '학생들이 늘 웃고, 선생님들이 웃으며 생활하는 동산고등학교'가 되도록 하라는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웃음이 있는 학교는 즐거운 학교, 행복한 학교일 것입니다. 가정주부가 좋은 요리를 하려면 요리에 대한 지식과 열정에 선행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학생과 선생님 관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힘들게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선생님이 웃으며 가르칠 수가 있을까요?

학생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선생님들이 의식을 개선하고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방지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는 데 아무도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업권 확보와 교권 보호가 없으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가 될 것입니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행복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권보호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동산을 위해 선생님들의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잘 따르는 동산인이 되기를 바랍니다.